

나주시, '영산강 3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 청사진 속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6월 초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요청에 따라 노면상태가 불량한 영산강 둔치 자전거길 노후 400m구간 보수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공사는 나주를 관통하는 영산강 둔치 자전거길 이용객들이 일부 구간 노면 균열과 아스팔트 재료 분리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위험을 우려해 보수공사를 인수위에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시는 지난 달 해당 구간 노면 아

스팔트 재포장 공사에 즉각 착수해 이달 1일 완료하고 자전거 길을 개통했다.

아울러 담양 용소에서 나주, 목포 등을 경유하는 총 133km구간 영산강국도종주자전거길에 포함된 나주시 43km구간 친수구역 내 불량 자전거길 점검·보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국비 71억6천6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양곡교

~ 양암바위'(1km), '느리지전망대'(1.2km)에 대한 영산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공사를 오는 2023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간은 하천 제방이 없는 상습 사고 구간으로 자전거 길과의 연결을 통한 이용객 편의와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사업들을 통해 윤병태 시장이 공약한 '영산강 3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공약사업은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자전거길을 조성, 나주를 대표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비 지원을 통해 자전거 교육, 수리·대여, 동호회 센터, 편의시설 등을 갖춘 '자전거 종합지원센터'를 영산포와 죽산보에 구축하고 나주를 영산강 3백리 명품 자전거길 종주도시로 도약시킨다는 포부다.

/김동철 기자

장성군 "1천만 관광 시대 향해 달린다"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이한 휴가철, 축령산 편백숲과 백양사 등 장성군이 보유한 관광지들이 다시 조망받고 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어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축령산 편백숲은 조림왕 임종국 선생(1915~1987)이 만든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지다. 편백나무, 삼나무 등 상록수들로 조성된 1150헥타르(ha) 규모의 방대한 숲이 장관을 이룬다. 산림청이 지정한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에 이름이 올라 있으며, 7월에는 숲강스(숲+바캉스)를 주제로 한 전라남도 추천 관광지에 선정됐다.

천년고찰 백양사는 대외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관광지다. 백암산을 비롯해 고불대, 쌍계루, 애기단풍 등 눈길 닿는 곳마다 그림같은 풍광이 이어진다. 특히, 사찰에 머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백양사 템플스테이'와 정관스님의 '사찰음식 체험'이 인기다. 최근에는

(재)전라남도관광재단이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했다.

북하면 입암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남창계곡은 가족 단위 여행지로 제격이다. 여섯 개의 골짜기 사이로 시원하게 쏟아지는 계곡물을 지닌 '천연 워터파크'다. '장성8경'에 꼽힐 정도로 절경을 자랑한다.

주말마다 1만 명이 꾸준히 찾는 장성호 수변길도 피서지로 유명하다. 두 개의 출렁다리가 설치돼 있는 '출렁길'과 명품 트레킹 코스 '숲속길'로 나뉜다. 풍성한 계절꽃이 피어나는 황룡강은 울가물에도 축제를 개최해 '10억 송이 꽃강의 기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필암서원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코스다. 성리학자인 하서 김인후 선생이 배향(配享)된 장성 필암서원은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상과 학자들의 생활사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다. 지난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유광종 기자

영광,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우산공원에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물무산 행복숲 유아숲 체험원에 있는 물놀이장, 향교 위 물놀이장을 오는 9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8월 14일까지 운영하는 어린이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개방하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신변증 지참 영광주민만 입장이 가능하다. '물놀이장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과 '생활방역 세부수칙'에 따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으면 입장이 제한된다.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13세까지이며 만 5세 이하는 보호자를 동반 이용해야 한다.

우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사전 예약 70%와 현장 선착순 입장 30%로 입장 가능하며, 유아숲 체험원 물놀이장과 향교 위 물놀이장은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입장 가능하다.

입장인원은 우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오전, 오후 각 200명씩 하루 400명이며, 물무산 행복숲 어린이 물놀이장과 향교 위 물놀이장은 오전, 오후 각 100명씩 200명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신중을 기해 보다 더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틈새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블랙베리 찰옥수수 생산과 출하가 시작했다. 군은 춘양과 도암면 등 11농가가 2ha 규모의 실증 재배한 블랙베리 찰옥수수를 지난 7일부터 백화점 등에 출하했다고 밝혔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블랙베리 찰옥수수 출하 시작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틈새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블랙베리 찰옥수수 생산과 출하가 시작했다.

군은 춘양과 도암면 등 11농가가 2ha 규모의 실증 재배한 블랙베리 찰옥수수를 지난 7일부터 백화점 등에 출하했다고 밝혔다.

블랙베리 찰옥수수는 줄기, 잎, 속대까지 흑색을 띠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기능성 옥수수로 당도가 15

° 내외로 맛도 좋아 찰옥수수 집중 출하기에 틈새 소득 작목으로 주목 받는 품목이다.

삶거나 찌서 먹어도 되고 차로 끓여 먹거나 옥수수밥을 해 먹으면 맛도 좋고, 예쁜 빛깔을 체험할 수 있다.

군은 새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 신품종을 도입해 종자대, 농자

재, 재배 기술 매뉴얼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인터넷 판매,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유통업체와 사전 계약재배를 추진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창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블랙베리 찰옥수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차, 빵 등 다양한 용도로 가공이 가능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호경 기자

담양, 청년 문화복지카드 주소요건 완화

2020년 7월 1일 이전부터 전남 거주 21~28세

담양군이 관내의 더 많은 청년에게 문화복지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의 주소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7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21세부터 28세(1994년~2001년 출생자) 청년이며 연령과 주소 기준 충족 시 매년 지급된다.

다만,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는 문화누리비 10만 원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청년 문화복지비는 도내의 문화

활동, 자기계발, 관광을 위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며 균형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카드 사용 안내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31일까지 농협카드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진행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2020년 1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전남으로 전입해 지원받지 못한 청년들은 이번 추가모집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균형 투자유치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장진성 기자

청정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장! 무안을 말하다...